

로마서: 믿음의 삶

10주차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로마서 7:1025

2022년 9월4일

-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글자 중 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긴장입니다.
- 한편으로 는 우리를 만드신 분과의 깊고 의미 있는 연결에 의해 형성 되고 영감을 받고 형성되는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 그 열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이나 깨달음은 다양합니다.
- 그러나 도전이나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 바우로는 평범한 영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영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Bo와 함께, 그리고 이번 주에는 7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의 바닥에 도달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처음 17절을 함께 읽은 후에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로마서 7:1-17

아니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효력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2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결혼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3 그러므로 그녀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 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한 여자가 아닙니다. 4 내 형제 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6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성령의 새 도를 섬기고 기록된 율법의 옛 도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라고? 결코 아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 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고 하지 않았다면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 입니다.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모든 탐심을 낳게 하였느니라 율법 외에는 죄가 죽은 자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9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 이 이르매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습니다. 10 생명을 약속하신 바로 그 계명이

나에게 죽음 이 되었습니다. 11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도다 12 이와 같이 율법도 기록하고 계명도 기록하고 의로우며 선 하도다 13 그러면 선한 것이 나를 죽게 하였느냐? 결코 아니다! 죄가 곧 선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사망을 낳은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하고 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측량할 수 없게 되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느니라 15 나는 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16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 합니다 . 17 그런즉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 그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 다음 주에 로마서 8장과 같은 좋은 내용을 보고 싶어합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1.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
- 2. 주된 이유는...그는 끝부분, 다음 몇 구절 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말을 합니다.
-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 갑자기 인간 - 마치 그가 이 모든 정보를 제시하는 것처럼 - 그리고 그가 앓고, 진정하고, 사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장소에 와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무언가를 말합니다.

로마서 7:18-25

내 안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9 내가 원하는 선 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 하는 악 을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할 때에 악이 가까이 있는 줄을 깨닫고 22 내 속사람으로 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 으로 죄의 법을 섬깁니다.

-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 당신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
-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 습관입니다.
- 사고 방식입니다.

-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 그리고 당신은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당신의 영혼에 너무 깊숙이 얽혀 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바울은 “저는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합니다.
- 내 말은, 진지하게, 나는 요점에 이르렀고,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곳에서...알겠습니다.

- 하지만 내 인생에서 그가 실제로 원한다고 느끼는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 완전히 맞는 것은 어떻습니까?
- 완전히 변경해야 합니까?

다루고 싶은 것 , 이것이 살림입니다.

- 바울이 풀어놓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변화와 관련하여 이 현실의 중요성과 매일의 영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바울은 인간 마음의 깊은 분열을 풀고 ...

- 안에 뭔가가 깃들어 있습니다.

-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 그것은 우리의 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단순히 하는 순간을 초래합니다.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ewis Stevenson**),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저술

-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전에 익숙합니다.

- 당신이 그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는 자신에게서 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선과 악의 조화되지 않은 화합물."

- 그래서 이야기는 그가 혈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 자신의 두 부조화 한 부분을 분리하여 밤에는 그가 나쁘고 낮에는 보호되도록 합니다.

- 놀랍게도 그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악 합니다.

• 에드워드 하이드 - 그의 이름은 숨겨진 것의 모자 끝 - 그의

끔찍함 - 개탄스러운 일을 합니다.

• 지킬이 혐오하는 것들.

• 지킬 - 저항하려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 그리고 그가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 중 하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존재의 핵심에 악의 능력, 즉 끔찍함을 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Gasey Jr. 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 그는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우리가 정직할 때 보십시오.

• 우리가 가장을 멈출 때.

• 우리가 앞왔을 때, 여기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진정하십시오. “ 예 . 더 깊은 일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사람들이 시도하는 주요 솔루션은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안됨)

• 7-17절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이제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모든 문화와 모든 신념 체계에 적용됩니다.

• **CS Lewis in Abolition of Man**• 이슬람/유교/힌두교/유대교/기독교를 비교하고 놀라운 수렴을 보여줍니다. 도덕법은 매우 유사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 당신이 어디에 살든 - 도덕법 으로 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 진정한 "지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우리는 법을 읽습니다.

• 우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 우리는 법을 실천합니다.

•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극복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동 수정은 효과가 없습니다.
- 8-9절은 내가 높이 평가하는 자전적 스케치를 제공합니다.

로마서 7:8-9

그러나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아 내 속에 모든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 외에는 죄가 죽은 자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9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습니다.

- 그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 그는 내가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 아직 달리고 있는 팀처럼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 그는 자신의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은 좋다"라고 말하며 나는 달리고 있다...
- 그 이유는 외적 행위에 관한 법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열 번째 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 탐내지 마십시오.
-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전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는 불안정하고, 질투하고, 교만했습니다.
-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어떤 행동을 바꾸나요?
-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덕법이 이 죽음을 만들었습니다.
- 지킬은 이렇게 썼습니다.
- "나는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의 행동을 결의했다. 그리고 내 결심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나 어느 맑은 날, 나는 리젠트 파크의 햇살 가득한 곳에 앉아 다른 남자들과 나를 비교하며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선의의 행동을 그들의 게으른 잔학 행위와 비교하고, 그 헛된 영광스러운 생각의 바로 그 순간에 불안이 나를 덮쳤다. 끔찍한 메스꺼움과 무서운 셔터링.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는 다시 한 번 에드워드 하이드였다."

- 가장 무서운 순간이 아닐까요?
-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의 끔찍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 그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 자신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다가 그의 선하심으로 하이드가 되었습니다. 왜요?
- 이기적이 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명백한 나쁨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밖에 없다고 믿으며 당신이 당신 자신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 그러나 자신이 여전히 불안하고, 쓰라리고, 경쟁적이며, 그 이상은 아닐 지라도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죽입니다.
-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다루기 위해 노력한 만큼 -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좋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 마음의 동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실제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7 절로 돌아가 보자.
- 당신이 나와 같다면,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혼 한 여성에게 이 모든 일을 했고 그녀의 손가락이 죽었습니다.
- 그는 7절에서 제기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7:7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이 죄라고? 결코 아니다! 그러나 율법 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에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 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법을 무시 합니까 ?
- 그것이 질문입니다.
- 1-4절에서 그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상한 예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7:1-4

아니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은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효력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2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법 으로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결혼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3 그러므로 그녀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남자

와 동거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 한 여자가 아닙니다. 4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 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 왜 결혼인가?

• 첫째, 문화적으로, 특히 그 문화의 여성에게는 더 이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없었습니다.

• 하나님의 법, 이 도덕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보편적입니다.

• 그러나 둘째, 그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혼을 사용합니다.

• 그러나 결혼하면 결혼의 힘으로 인해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게 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그 사람은 아름답다고 합니다...당신은 아름답습니다!

• 당신의 정체성, 동기, 당신이 누구인지는 이 사람에 의해 근본적으로 형성됩니다.

•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 이 사람이 당신을 훨씬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면?

• 우리는 계약에 가장 구속력이 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결혼했습니다.

• 법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과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배적인 동기 구조는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7:4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니까?

• 사망했습니다.

• 예수님과 십자가로 율법과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 그리고 당신은 이제 무언가 또는 새로운 사람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진정한 변화, 일종의 깊고 의미 있는 변화가 그가 당신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온다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지금, 두려움이나 속박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대신.

- 우리는 감사와 사랑, 기쁨으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 나는 이것이 성경이 교회와 예수님 의 관계 를 묘사하기 위해 이 신부/신랑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 당신 마음의 동기 구조 를 완전히 재구성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

- 모든 종교 체계는 복종 또는 그렇지 않으면 말합니다.

-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게 하십시오.”

-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7월 31일

나성찬 목사

제목: 환난 때에 애가가 필요함

구절: 애가 1:1-3 / 예레미야 29:4-7

애도의 부재

시편: 60% 찬양 / 40% 애도 • 전례 예배

- 애도 찬송가 및 읽기 건너뛰기 • 침례교/장로교 찬송가

- 찬양 80~85% / 탄식 15~20% • 현대예배(CCLI)

- 칭찬 90~95% / 탄식 5~10%

애도를 정의

• 적절한 대응

- 신학적, 전례적, 영적, 교회적 -

• 고통, 고통, 위기의 현실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현실

애가 1:1

한때 사람들로 가득했던 도시가 얼마나 황량한지! 한때 민족들 가운데 큰 자였던 그녀가 얼마나 과부 같습니까! 지방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가 1:2

그녀는 밤에 몹시 울고 눈물이 그녀의 뺨에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연인들 중에 그녀를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의 모든 친구들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적이 되었습니다.

애가 1:3

고난과 가혹한 노동 끝에 유다는 포로로 갔습니다. 그녀는 민족들 사이에 거한다. 그녀는 쉴 곳을 찾지 못한다. 그녀를 쫓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고통 속에서 그녀를 따라 잡았습니다.

역사적 맥락

• EXILE에 대한 잠재적 대응:

- 도망치고 숨기기(GIVE UP)

- 승자의 방식에 적응(GIVE IN)

애가(야웨의 주권)

예레미야 29: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9:5-6

“집을 짓고 정착하십시오. 정원을 심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먹습니다.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낳으십시오. 네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고 네 딸들을 시집가게 하여 그들도 아들딸을 낳게 하라. 거기에 숫자의 증가; 감소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7

또한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라.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일이 형통하면 너도 형통하리라

사진 1(방주) 사진 2(방주) Ark-itecture

사진 3(방주)

누가 애가를 썼습니까?

• 망명 – 모든 학식, 지식인, 예언자, 문맹 퇴치

• 예레미야의 저자인가?

• **Jeremiah** 편집자/큐레이터

- 축하와 고통의 신학

- 발터 브루게만(**Walter Brueggemann**)의 평화(shalom)

• "가지고"와 "없다"에 대한 샬롬의 차이점

축하와 고통의 신학

• 관리 및 청지기

• 세계는 일반적으로 **GOOD**

• 삶은 이미 건강하고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 양육자로서의 하나님 / 여성적 형상

• 현상 유지

• 생존과 구원

•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악하다

• 삶은 위태로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 전사로서의 신 / 남성적인 모습

• 불의에 맞서라



2022년 7월 31일

나성찬 목사

제목: 환난 때에 애가가 필요함

구절: 애가 1:1-3 / 예레미야 29:4-7

애도의 부재

시편: 60% 찬양 / 40% 애도 • 전례 예배

- 애도 찬송가 및 읽기 건너뛰기 • 침례교/장로교 찬송가

- 찬양 80~85% / 탄식 15~20% • 현대예배(CCLI)

- 칭찬 90~95% / 탄식 5~10%

애도를 정의

• 적절한 대응

- 신학적, 전례적, 영적, 교회적 -

• 고통, 고통, 위기의 현실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현실

애가 1:1

한때 사람들로 가득했던 도시가 얼마나 황량한지! 한때 민족들 가운데 큰 자였던 그녀가 얼마나 과부 같습니까! 지방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가 1:2

그녀는 밤에 몹시 울고 눈물이 그녀의 뺨에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연인들 중에 그녀를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의 모든 친구들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적이 되었습니다.

애가 1:3

고난과 가혹한 노동 끝에 유다는 포로로 갔습니다. 그녀는 민족들 사이에 거한다. 그녀는 쉴 곳을 찾지 못한다. 그녀를 쫓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고통 속에서 그녀를 따라 잡았습니다.

역사적 맥락

• EXILE에 대한 잠재적 대응:

- 도망치고 숨기기(GIVE UP)

- 승자의 방식에 적응(GIVE IN)

애가(야웨의 주권)

예레미야 29: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9:5-6

“집을 짓고 정착하십시오. 정원을 심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먹습니다.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낳으십시오. 네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고 네 딸들을 시집가게 하여 그들도 아들딸을 낳게 하라. 거기에 숫자의 증가; 감소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7

또한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라.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일이 형통하면 너도 형통하리라

사진 1(방주) 사진 2(방주) Ark-itecture

사진 3(방주)

누가 애가를 썼습니까?

• 망명 – 모든 학식, 지식인, 예언자, 문맹 퇴치

• 예레미야의 저자인가?

• **Jeremiah** 편집자/큐레이터

- 축하와 고통의 신학

- 발터 브루게만(**Walter Brueggemann**)의 평화(shalom)

• "가지고"와 "없다"에 대한 샬롬의 차이점

축하와 고통의 신학

• 관리 및 청지기

• 세계는 일반적으로 **GOOD**

• 삶은 이미 건강하고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 양육자로서의 하나님 / 여성적 형상

• 현상 유지

• 생존과 구원

•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악하다

• 삶은 위태로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 전사로서의 신 / 남성적인 모습

• 불의에 맞서라

